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1독서 : 이사 52, 7-10

제2독서 : 디도 3, 4-7

복 음 : 루가 2, 1-14

이 주일의 화답송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 분의 길을 걷는 이는
모두 복되도다.

술정이



우리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이웃에게 평화와 희망의 사신이 되고,
모든 민족들에게 폭력대신에 생생한 사랑이
스며들고 정의가 깃들이도록,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신 평화의 예수가
우리 사이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희년묵상

“그분의 길을 걷는 이는 모두 복되도다”

송영진 신부

우리에겐 외적인 척도로 측량할 수도 있고,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룩함, 사랑, 행복 … 이런 것들은 측량할 수도 없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릴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가정이었고,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거룩한 가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항상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했던 복된 성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의 소중함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그 외적인

성과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믿음, 사랑, 행복과 기쁨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각자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중요할 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을 입교시켰느냐’는 기쁜 소식과 기쁨을 얼마나 널리 전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전하는 사람과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의 내적인 기쁨의 크기는 외적으로 측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교왕 시상식 같은 일은 지금 우리 스스로 할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기쁘게 살고, 그 기쁨이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거룩하게 사는 사람 모두를, 하느님께서는 다 선교왕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교구·제 단체 소식

- 교구 사제양성 후원월례미사 : 1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 센터
- 익산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1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영등동 성당
- 평화의 날 미사 : 1월 1일(토) 오전 10시 30분, 중앙성당, 교구장님 주례
- 성모기사회 월례회 : 1월 1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 기억할 사제 : 12월 27일 김후성(프란치스코)신부 54주기



북한동포돕기 종교인 합창제

일시 : 12월 27일(월) 오후 7시

장소 : 전북예술회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신자들이 북한 동포를 돋기 위하여 함께 모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정합니다

지난 19일자 3면에 대희년의 문을 닫는 시기가 2000년 1월 7일로 보도된 것을 2001년 1월 6일로 정정합니다.

26년간 숲정이에 만화와 만평을 연재해 주신
김병오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 흥 가 방

유치원·학원가방 전문
각종가방 주문제작 전문업체
채 병 두(프란치스코)
박 은 숙(글 라 라)
익산시 어양동 쌍용A 후문 상가
☎ 080-560-0001(무료전화)
(0653) 831-6797
(0653) 831-2955(귀정)

서울방사선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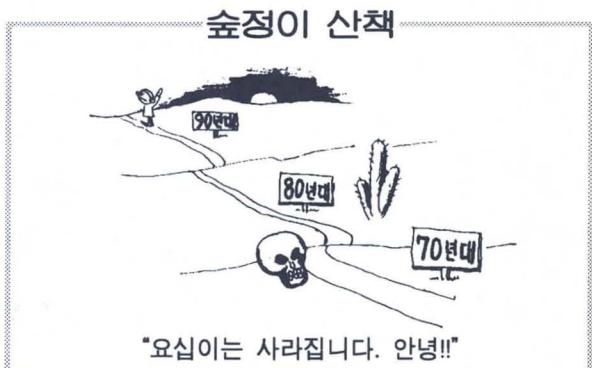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 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0652) 278-1312~3

(주)트리오 전복지사

휘슬러 압력솥
재너럴 모터 주서기
마체프 통3중 냄비
수입완제품 판매 및 A/S
요리강습후 구입하신
타사제품도 A/S 가능함
☎ 대표 (0652) 245-1301
(사원 모집중)

서신 푸른학원

소수그룹전문학원(차량운행)
초등부(수학경시반, 전과목반)
중등부, 고등부(국/영/수/과)
원장 : 이 절 구(요한)
안 수 희(디나)
서신중 앞 SLP 5F
☎ 252-4180~1



“요십이는 사라집니다. 안녕!!”

1999년 성탄메시지



대회년을 여는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여

전주 교구장 이병호 주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주님의 은총과 대회년의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대축일 일뿐 아니라 온 교회가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려 온 대회년이 개막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날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크게 보아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첫 번째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때를 기점으로 하여 2000년이 되는 해를 대회년으로 경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끝에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기 위해 오시는 일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너무도 비천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식으로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싸여”(마르 13, 26) 계신 모습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세 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구세주께서 오시지 않는가?

그분께서는 지금도, 아니 지금에야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오시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각종<성사>,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교우들이 “큰 성사”라고 불러왔던 성체성사를 통해서, <성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특히 우리의 손길을 더욱 필요로 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만남>을 통해서, 떠오르는 좋은 <생각>, <깨달음>을 통해서, 그밖에도 <수많은 다른 길>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거기 와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들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묵시 3, 20).

마지막 오심의 때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그때의 오심이 먼 훗날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의 내 삶과도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는지 집

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 24, 43-44).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도, 우리 각자의 한 삶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속 깊이 받아 모시는 데에 그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 일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대회년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세월의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할 항해를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은 희망과 절망, 설레임과 답답함이 교차하는 심경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 차츰 멀어지고 국제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협하던 무신론적 공산주의 세력이 결정적인 붕괴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민주화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또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의 수확량을 훨씬 많게 하는 기술도 개발되었고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이 두 분야에서 앞으로도 보통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올릴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역시 세계를 말 그대로 한 마을처럼 가깝게 느끼고 이 세상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국제간의 무력침략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경제적 침략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특히 약소국가들 사이에 번지고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물질, 권력, 명예, 출세를 지나치게 높이 추켜세우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수명연장까지는 좋은 일임에 틀림없지만 노년층의 증가와 함께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소외감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라나는 세대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대신 기계 앞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때문에 가능하게 된 현대적 생활은 자연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환경을 급속도로 오염시키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에너지, 물, 식량, 기타 여러 가지 지구자원은 몇 년 못 가서 바닥이 나던가 아니면 너무 오염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세기와 천년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를 눈앞에 두게 된 지금, 우리에게는 희망과 절망의 문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뿐 아니라 후손의 운명까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두고서는 정치인이나 과학자들 혹은 이른바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우리 각자는 뒤에 물러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 하나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빛과 소금으로서 더욱 깊이 숙고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할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인류에게는 분명히 큰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들의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의 힘으로 실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대희년 특별사목교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희망의 근거와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각자는 지금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남을 경쟁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쫓겨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망은 한없이 부풀고 자연은 무참하게 훼손되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점점 더 적대적인 방향으로 기울어갔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의 문화는 모든 것들을 훼손하고 희생시키는 <죽음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식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계속되면 <너>, <나> 할 것 없이 함께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남을 존중하고 함께 잘 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확실한 진리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루가 24). 예수께서는 말씀으로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그 결과 부활에 이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얻는 참된 삶.” 우리의 신앙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오늘에 와서 이 진리는 종교 영역을 벗어나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규범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때, 우리 신앙인들이 이를 먼저 깊이 깨닫고 실천하면, 인류는 과거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의 문화>를 이루고 참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갓난아기로 짐승 우리에 누워계신 구세주의 모습부터가 <죽음을 통한 참된 삶>의 진리를 시사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없는 가운데 응변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마태 5, 3-10). 예수께서는 장차 입으로 선포하신 행복의 길을 탄생의 첫 순간부터 온몸으로 선포하십니다.

적게 소비하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가난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느끼는 사람, 묻혀 지내면서

도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 없는 가운데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돋는 사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재력, 학력, 기회, 지위 등을 두고 자기는 그 관리자일뿐 참된 주인은 하느님이신을 생각하여 그것을 좋은 일에 잘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새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꾼들, 새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희망이 시들고 꿈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새 세상의 꿈과 희망을 이웃에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실천하여, 대희년의 정신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온 방안을 밝히는 불빛처럼,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누룩처럼, 이웃과 사회 속으로 힘차게 뻗쳐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아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세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게 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묵시록의 저자와 더불어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묵시 21, 1).

1999년 성탄절



이병호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원아모집

- 대상 : 2세~취학전 아동
- 시간 : 오전반/종일반
- 특징 : 몬테소리 교육, 중식·간식 제공, 저소득층 자녀혜택, 차량운행
- 원장 : 인보성체 수녀님
- 문의 및 접수 : 212-1618
팔복성모 어린이집

충주성모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모집

- 대상 : 시작장애를 가진 유, 초, 중, 고등부
- 기간 : 수시모집
- 문의 : (0441) 852-1374, 843-1433(야)

백마의스프레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 이정환(마르코)
인정미(프란치스카)
- ☎ (0652) 253-2452 H · P019-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

서도 삼익 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울才干(면세), 디지털 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 중고고가 매입 및 보상 판매
- 장기할부 및 단기 무이자 판매
- 악기연주 지도상담(음악학원 운영경력 20년)
양노 셉(하상 바오로)
- 효자동 현대④앞 서도 프리자 2층
☎ (0652) 225-5252/223-5332

전주대학외과 (구. 학문외과)

대장 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변비)
전문의 소 우성(스테파노)
효자동 서도프리자 입구
☎ (0652) 227-0377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 드립니다. 예뜨락 미술학원

유치부 및 초등부 모집
정규 유치부(4~7세, 오전 9시~
오후 3시까지 수업)
원장 이정순(율리안나)
아중 제일⑧ 상가 파리바게트 2층
☎ 246-8483

박기영 세무사 사무소

기장대리, 신고대리, 양도, 상속,
증여 상담, 고세적부심사, 불복 청구
박기영(대건 안드레아)
김경숙(아네스)
진북 1가 407~4
(전주세무서별관 옆)
☎ 253-7200~1
H · P011-677-4793

동전주 주유소(쌍용정유)

정품 정량 판매, 배달
황연옥(요셉)
윤성자(수산나)
소야진안방면초입(우아동 파출소 옆)
☎ (0652) 245-5134, 5123

허리디스크, 요통에서의 해방

국내는 물론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한 디스크-닥터는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에서 2년 임상실험 결과 '작용후 3일이내 82%이상 호전'
(디스크 치료기 디스크-닥터)
창의 메디칼
(0652) 282-1610~1 (복자성당 옆)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iskdr.co.kr>

영창피아노 전주중앙점

- 장, 단기 할부판매
- 중고보상 판매
- 조율 및 운반전문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 ☎ (0652) 252-0103~4
284-6085/284-9989
(구. 서중로타리 동원증권 맞은편)

무주구천동 별장콘도

스위스식 풍경 40평형 단독별장
방 3, 욕실 2, 거실대형, 주방
장성래(레오나르도)
무주리조트 건너편
☎ (0657) 322-1241, 4081

주식매매 및 신규투자상담

금융상품 · 뮤츄얼펀드 · 채권
신협 · 성당 자산 운용상담
차장 박정일(라우렌시오)
☎ (0652) 288-0011(代)
288-1252(直)
H · P 016-233-4668
(대우증권 전주지점 - 시청옆)

2000년 대회년의 문을 엽니다

대회년은 그리스도 탄생 2000년을 경축하는 은혜로운 해입니다. 이 회년을 시작하는 행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나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요한 10, 9).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황님은 베드로 대성전의 문을 열어 대회년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우리 교구는 12월 25일 성탄날 밤에 전동 성당에 함께 모여 말씀의 전례로 시작하여 주교좌 성당까지 시가행진을 하고 주교좌 성당의 중앙 문을 통하여 들어감으로써 대회년의 개막을 이 땅에 선포합니다.

대회년 개막 예식은 다음과 같이 거행됩니다.

제1부 : 말씀의 전례

12월 25일 저녁 7시 30분, 전동성당 마당에서 개최되며, 개막 축하 공연과 개막을 알리는 말씀의 전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시가행진 때 밝혀 들고 갈 초를 대회년 선물로 나누어 드립니다.

제2부 : 행렬

개막식 후 신자들은 전동성당에서 팔달로를 거쳐 중앙성당까지 행렬을 합니다. 이 행렬의 중심은 복음서 봉송입니다. 모두 촛불을 밝혀 들고 성가를 부르며 복음서를 봉송하게 되는데 이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신비를 경축하는 것입니다.

제3부 : 미사

중앙성당에 도착하면 성전의 중앙문이 열리고 이 문을 통해 복음서가 통과하고 대회년이 장엄하게 선포됩니다. 곧 이어서 이병호 주교님의 주례로 개막미사가 이어집니다.

2000년 전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구세주를 뵙기 위해 베들레헴의 구유로 달려갔던 가난한 목동들의 마음을 갖고 대회년 개막행사에 참여합시다.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2000년 새천년 맞이 밤샘기도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25일 저녁의 대회년 개막미사에 이어 2000년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밤인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는 각본당에서 밤샘기도를 하게됩니다.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여 희망과 축복의 새천년을 여시기 바랍니다.

LG 냉난방

에어컨, 식당용 냉장고
천정형 에어컨
원 승 연(도밍고)
백제로 빙상경기장 전너편
☎ (0652) 241-2000

정직, 정품, 정량
보일러 청소/ 신용카드 환영

백 마 석 유
백등유(석유) 보일러 등유
사무실 통배달
허 정 철(마태오)
이 영 선(데레사)
☎ 283-6210/ 225-5119

김회민 정형외과

기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중고 자동차

신용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차종 위탁, 이전, 매입
전국자동차 매매상사
신 등 설(바로)
유 미 나(사비나)
동부 우회도로 모아자동차 단지내
H-P/011-683-3283/(여)223-3283

요심이 (1377)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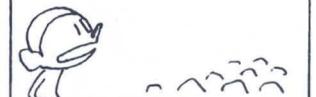
(나는 술정이를 떠나갑니다.)



(26년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심이가 편집방침이 달라져서...)



(여덟시간이 되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입생모집 돈보시기 직업전문학교

- 기계과(기계조립, 선반) 1년과정 : 00명
- 교육 : 선반, 기계조립, 밀링, 연삭, 용접, 컴퓨터, CAD/CAM, CNC, 종교·인성교육
- 특전 : 교육 및 기숙비무료, 방통고편입학, 고급반운영, 군입대 연기 가능, 취업보장
- 대상 : 만 16~23세, 남, 중증퇴이상
- 문의 : ☎ (02) 833-4010

동서로 삼의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 판매장, 전자오르간 수리
김 태 우(일봉소)
황 진 숙(안질라)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 (0652) 288-7717~8

■ 김·정·고·부 지구 본당소식 ■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 무 실 564-2044 주임신부 김 기 수
유 치 원 564-3529 수 너 원 564-6585 사목회장 김 은 용 관

- ◎ 대희년 개막!! ① 2000년 교구장 사목교서 읽기
- ② 대희년을 시작하면서 실시하는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1. 죽! 영명 : 사도요한 본당 주임 신부님 * 영육간의 건강하심을 기도드리며 축하합니다. 축하식 - 오늘 공식미사 후
2. 모임 : ① 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성심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송년 미사 : 31일(금) 후 9시
4. 신년 미사 : 1월 1일(토) 전 10시 30분, 동해원(전 8시 30분)
5. 감사 : 성탄 행사에 수고하여주시고, 후원하신 교우님들 감사합니다
6. 예비신자 교리 : ① 신부님반 - 매주 화요일 후 8시
② 수녀님반 - 매주 일 전 9시
7. 금주 전례 : 은회태, 강의영

□ 지난주 봉헌금 : 857,000원 □ 교무금 : 3,673,000원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 무 실 584-1333 주임신부 이 완 재
유 치 원 584-1004 수 너 원 584-1332 사목회장 조 건 규
F A X 581-1334

◎ 오늘은 예수, 마리아와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1. 성탄절 행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금주 모임 : ① 사랑하울 모친 꾸리아 - 중심미사 후, 교육관
②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 - 중심미사 후, 유치원
3. 송년 미사 : 31일(금) 후 8시 * 10시 30분미사와 성체조례는 없음
4. 성모 마리아 대축일미사 : 1월 1일(토) 전 10시 30분 * 특전미사, 어린이 미사 없음 5. 사무실 휴무 : 27일(화) ~ 28일(화)
6. 사랑의 나눔헌금 : 6 - 1반(3만), 이정옥(2만), 7 - 1반, 장영례
김형덕(각 5만), 신이근(10만), 정홍만(10만), 신석만(8만 7천)
※ 감사합니다
7. 금주 청소 : 6구역

□ 지난주 봉헌금 : 801,000원 □ 교무금 : 8,937,000원

□ 성체 헌금 : 44,300원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 무 실 544-5652 주임신부 최 종 수
F A X 543-0177 수 너 원 544-5654 사목회장 김 한 규

1. 금주 전례 : 해설 - 박영덕, 독서 - 박철호, 김선례
2. 차주 전례 : 해설 - 김정애, 독서 - 박철호, 이금자
3. 평화의 날(1월 1일)전례 : 해설 - 박철석, 독서 - 김승학, 정재덕
4. 금주 모임 : 꾸리아 5. 차주 모임 : 성모회
6. 감사합니다 : 성탄행사에 수고하신 모든분께
7. 기부금 납입증명서 : 사무실에서 발급합니다
8. 99년도 교무금 완납하시고 2000년 교무금 신립바랍니다
9. 서동원(다미아노) 학사님 부제품 : 1월 20일(목) 영적, 물적 예물을 받습니다.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0. 대희년 교구 신자수첩 판매 : 1부당 1,200원 * 사무실에서
11. 성당 청소 : 치명자의 모후 Pr.

□ 지난주 봉헌금 : 260,820원 □ 교무금 : 2,159,000원

□ 2차헌금 : 103,420원

시기동 주임신부 532-3282 사 무 실 535-2169 주임신부 양 석 현
유 치 원 532-5777 수 너 원 533-9219 사목회장 손 주 표
F A X 535-2169

1. 99년도 교무금 미납금을 완납해 주시고, 2000년 대희년 교무금을 신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상향
2. 천주의 모친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 1월 1일 전 10시
3. 송년 미사 : 31일(금) 후 11시 4. 밤샘 기도 : 송년미사 - 1일 미사 전
5. 사목회 : 1월 7일, 사제관
6. 성심유치원 원아모집 안내 : 모집대상 - 5~7세(종일반 운영)
모집 및 접수기간 - 2월까지
7. 죽! 혼배 : 26일 12시 30분, 신랑 - 안영기, 신부 - 이명성(요안나)
8. 금주 전례 : 해설 - 배상경, 독서 - 나종태, 신명자
9. 금주 모임 : 프란치스코 세속삼회, 아브라함회(26일), 꾸리아(1월 1일)
10. 차주 모임 : 반장모임, 성모회(1월 2일), 나래회(1월 5일)
성심회(1월 7일), 돈보스코회, 모니카회, 청년회(1월 8일)

□ 지난주 봉헌금 : 1,347,000원 □ 교무금 : 2,484,0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 무 실 543-0881 주임신부 김 은 희
유 치 원 543-4236 수 너 원 545-2843 사목회장 김 낭 기

1. 송년 미사 : 후 9시 * 성체조배 없음
2. 1월 1일 : 전 10시 * 특전미사 있음
2. 초등부 주일학교 방학 : 26일
* 개학후 토요일 후 4시 미사시간 변경
4. 김사 : 제대꽃 봉헌 및 나눔의 잔치 수고하신 모든 분들
오르간 - 이진명, 이영희, 김용덕, 천정옥, 김종순, 유정, 조대환
5. 금주 전례 : 해설 - 강단규, 독서 - 손영진, 이영자
6. 차주 전례 : 해설 - 최석기, 독서 - 박금택, 김화자
7. 성당 청소 : 1, 2구역

□ 지난주 봉헌금 : 283,410원 □ 교무금 : 930,000원

□ 진안성당돕기 2차헌금 : 134,400원

신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 무 실 571-8201 주임신부 전 종 봄
F A X 571-8208 수 너 원 571-8203 사목회장 오 영

-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27일)을 축하드립니다 : 축하식 - 26일(주일) 미사 후 * 축하연은 없습니다
- ◎ 성탄행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1. 송년미사 : 31일(금) 후 7시 30분
- 2. 전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은 의무축일입니다 : 미사 전 10시 30분, 신년하례식(미사 후)에 있습니다
- 3. 꾸리아 연총침진회 행사 : 1월 2일(주일) 미사 후
- 4. 어린이 청정성체 교리시작 : 1월 13일(목),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6학년(2000년 기준) * 부모님과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5. 차주 미사 짐식 : 신기, 동락 6. 차주 공소 미사 : 옥단(8일), 태인(9일) 7. 금주 모임 : 전례부 - 28일(화)
- 8. 차주 모임 : 대건회, 사목회, 학생회, 성심회, 꾸리아, 성모회, 청년회
- 9. 감사헌금 : 이명 50만원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73,900원 □ 교무금 : 4,317,000원

□ 지난주 2차헌금 : 254,790원

신 풍 주임신부 544-2272 사 무 실 544-2271 주임신부 박 종 충
F A X 544-2271 수 너 원 544-2273 사목회장 김 태 출

- ◎ 오늘은 본당 발전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1. 금주 모임 : 꾸리아 2. 차주 모임 : 성모회, 청년회, 요셉회, 대건회
- 3. 공소 미사 : 없음 4. 본당미사 참례공소 : 용지, 차주 - 신암
- 5. 밀린 교무금 완납하여 주시고, 새해 교무금 신립하여 주세요
- 6. 성탄 행사에 협조하여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7. 감사헌금 : 2, 5, 9, 14구역 각 5만, 16구역 2만, 강실자, 익명 각 5만 * 감사합니다 8. 교육관 건립 기금 입금 : 원석연, 최장식, 추영임 각 100만, 정미순 20만, 정귀봉 40만, 김진기 30만, 송금례 10만 누계 146,435,265원 9. 가지 겨울바다로 : 1월 3일~5일, 선유도 회비 2만원, 26일 접수마감 * 계시판 참조
- 10. 복사단 연수 : 1월 6일~7일, 나바위
- 11. 성당 청소 : 7, 13, 14, 15, 16구역, 차주 - 청년회

□ 지난주 봉헌금 : 571,800원 □ 교무금 : 4,570,000원

□ 진안성당 돋기 2차헌금 : 388,3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3-0044 사 무 실 533-0898 주임신부 김 요 안
F A X 533-0045 수 너 원 533-2578 사목회장 고 광 전

- ◎ 41명의 예비신자가 새로운 생命으로 우리본당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1. 2000년 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 2. 오늘의 모임 : L.M 꾸리아
- 3. 주간 모임 : ① 사목회 - 28일(화) ② 구역(반)장회 - 30일(목)
- 4. 송년 미사 : 31일(금) 후 11시 5. 차주 모임 : 아브라함회
- 6. 12월 성당청소 : 신자들의 도움 Pr., 성실하신 모후 Pr.
* 수고하셨습니다 7. 감사합니다 : 25일 아동들 재통장치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8. 감사합니다 : 24일 성탄 밤미사 후 나눔의 잔치에 수고하신 여성분과 구역분과 및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9. 감사헌금 : 박하숙(이례나) 5만, 이금천(펠라도) 2만

□ 지난주 봉헌금 : 1,064,810원 □ 교무금 : 4,078,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 무 실 544-0151 주임신부 김 환 촌
유 치 원 546-3788 수 너 원 544-0153 사목회장 김 치 득

- ◎ 2000년 대희년 묵주기도 (총 432,963단)와 성탄행사 지난주 가두선교에 동참해 주신 모든 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1.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및 주임신부님 영명축일, 범석규 마지마 신부님 특강 교우전체 먹을거리 잔치 : 오늘 10시미사 후
- 2. 대희년미ت 전야축제를 위해 29일(수)~30일(목)까지 2일동안 저녁 미사에 절례합시다 : 31일(금) 8시 - 새신자 입교식(대부모 참석) 후 9시 - 영화(씨스터액트), 가짜수녀님의 본당활동 후 10시 30분 - 미사(전신자 초 지참), 12시 - 햇불놀이 한마당
- 3. 금년 교무금을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 4. 2000년 대희년미기 기념사업현금 신청 - 사무실(1구좌 10만원) : 신립 220세대, 31,100,000원
- 5. 2000년 1월 1일 신년미사 : 전 10시, 후 7시
* 후 4시 어린이미사는 없습니다

6. 성당 청소 : 샛별의 모후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 무 실 581-0241 주임신부 서 정 혁
F A X 581-0241 수 목회장 박 명 후

- ◎ 죽! 2000년 대희년!
- ◎ 새 영세자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1. 연말연시 행사안내 : ① 천년의 해님이를 지켜보며 - 31일 후 4시, 본당집결, 줄포 방조제
② 자정미사 봉헌 - 31일 후 11시(미사), 후 12시(타종)
- ③ 평화의 날 미사 - 1월 1일 전 6시
* 2000년 대희년 새아침 해돋이를 지켜보며 시간, 장소 - 아침미사 후, 줄포 천배산에서
- 2.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여 예비신자를 1인 1명씩 봉헌하여 주십시오
- 3. 대희년 맞이 본당 사회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강아지 기르기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69,000원 □ 교무금 : 240,000원

□ 2차헌금 : 117,5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숨정이를 보냅시다.